

■ '88년만에 독립운동 포상' 故 흥덕주 옹의 손자 흥순우씨

“이제는 할아버지 자랑 해야죠”

‘조선독립 광주신문’ 배포하다 옥고 생활고에 유가족등록 생각도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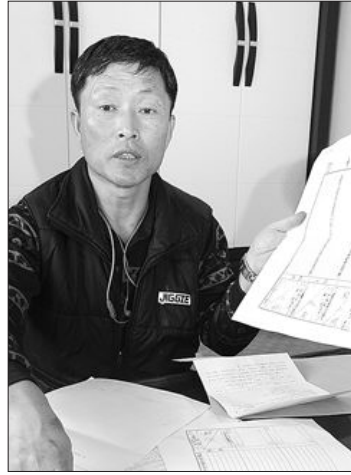
흥순우(52·광산구 우산동)씨는 지난 1월 할아버지를 찾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뒤늦게나마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자료를 찾아서 연락을 드린다면 할아버지의 유품이나 자료가 없느냐는 국가보훈처의 전화였다. 사진 한 장 남아 있지 않아 할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르지만, 어렵듯이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 흥씨는 구청을 찾아 제적등본을 확인했다. 제적등본을 확인하고 나서야 흥씨는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덕분에 아버지가 원호대상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뒤로 흥씨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록 절차를 밟았고 지난 26일 할아버지의 이름이 독립운동 포상자 명단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께서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나마 한 분 남은 고모님도 생활이 어려워 자주 빚지도 못했죠.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아주 어려울 때 일이라 자세한 것도 기억안나고...”

흥씨의 할아버지 흥덕주(1890~1935) 선생은 1919년 3·1운동 당시 29세로 ‘제중의원’(현 광주기독병원)에서 간호인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의원에서 회계일을 하던 황상호 선생과, 제약사였던 장호소 선생과 함께 ‘조선독립 광주신문’을 비밀

리에 300부 인쇄해 광주 큰 장터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다가 체포돼 2년 6개월 동안 수형생활을 했다. 조선독립 광주신문은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4호까지 발행돼 시민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했다.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가장의 옥고와 사망 등으로 인해 생활형편이 여의치 않았던 것처럼 흥씨도 어려운 생활을 해왔다. 1남 4녀의 넷째였던 흥씨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식모살이를 하며 생계



故 흥덕주 옹의 손자 흥순우씨가 할아버지의 재판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남매가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다. 흥씨는 버스 차장, 호객장사, 자장면 배달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요즘 그는 영세민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 복지관에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착실하게 돈을 모아 개인택시를 하는 게 소원이라는 흥씨는 뒤늦게나마 어려웠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월 오전 10시에 광주시민회관에 열리는 제8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있을 할아버지의 ‘건국훈장 애족장 전수식’에 이삭(10)·모세(8)·은반(6) 등 세 아들을 데리고 가 자랑스러운 할아버지의 얘기를 해 줄 생각이다.

김지영기자 wool@kwangju.co.kr



태극기 무료 배포 ‘광복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조성인) 회원들이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광주 충정로 우체국 앞에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선배들 애국심 본받자”

목포 정명여중·고 3·1 운동 유품 교내 전시

목포 정명여중·고등학교가 3·1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선배들의 유품과 기록물 등을 전시, 송고한 3·1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정명여중·고는 지난 2003년부터 교내에 위치한 유에나 선교사 사택 2층에 3·1만세운동과 4·8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선배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는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자료와 4·8만세

운동 등에 참가했던 학생들의 개인 기록물이 보관돼 있다. 특히 지난 1980년대 사택 전경에는 4·8 만세운동 당시 사용됐던

▲2·8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 ▲독립가 가사 ▲태극기 등 유품 7점이 발견됐다. 발견된 유품은 목포 정명여중 학생들이 당시 사용

했던 유품으로 현재 독립기념관에 보관돼 있으며, 교내에 전시돼 있는 것은 복사본이다.

학교 측과 동문·학생들은 지난 2000년부터 빛나는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기념공간을 마련하고 4·8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등 선배들의 송고한 애국심을 기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인공어초 주변 물고기 수 없는 곳 보다 1.7배 많아

전남대 신영호 박사 논문

전남 바닷가에 시설된 인공어초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

전남대 대학원 신영호씨의 올해 박사학위 논문(전남 연안 콘크리트 사각어초 주변에 서식하는 어류상)에 따르면 지난 2002~2003년 인공어초 시설구와 비시설구에서 삼중자망(刺網)에 의해 채집된 어류는 총 7목 23과 32종, 인공어초 시설구의 개체수는 1천318개체, 비시설구는 756개체였다. 어초 시설구의 경우 비시설구보다 1.7배 많이 고기가 물린 것이다.

하지만 어초 주변에 터를 잡은 어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다. 여수 금오도(이하 어초 시설구)에서는 5목 13과 18종이 관찰됐다. 이중 썬뱅이목 어류가 전체 출현종수의 38.9%를 차지했고, 개체수로는 멸치가 24.6%로 가장 많았다.

고흥군 도양 주변 해역(5목 13과 17종)에서는 전어가 출현 개체수의 29.3%로 우점했다. 출현

▲자망(刺網)=걸고 물. 어획하고자 하는 고기의 몸 둘레보다 작은 망목(그물)을 한 그물을 쳐서 고기가 끼게 하여 잡는다.

종수별로는 썬뱅이목이 35.3%로 1위였다.

완도군 신지 연안(5목 8과 12종)의 경우 역시 썬뱅이목이 종수의 41.7%로 절대다수였고, 개체수는 전어(32.2%)였다.

반면 신안군 흑산도 주변(5목 8과 12종)은 농어목과 가자미목에 속하는 어종이 전체의 27.8%로 많이 나타났다. 개체수로는 멸치(21.1%)가 많았다.

신씨는 이 논문에서 인공어초 시설 전 ▲대상 해양의 환경조사 ▲서식생물 및 저질 조사 등을 토대로 어초의 형태를 선정하고, 시설 후 서식상태 관찰 및 어획 제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골프공에 부상, 골프장·가해자 연대책임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래니 판사는 뒷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등을 다친 노모(여·36)씨와 노씨의 부친이 골프장 운영업체 1사와 공을 친 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노씨에게 1천250여만원의, 노씨 아버지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공을 치기 전에 앞 탑에서 골프를 친 사람이 이동해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됐는지를 확인한 다음 공을 쳐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골프장 운영업체의 경우 경기보조원 이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공을 치는 서씨를 제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골프장 관리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용역비 횡령’ 문화재연구원장 영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7일 문화재 발굴 용역비 횡령 의혹을 받았던 N문화재연구원 원장 A씨(순천대 교수)와 학예연구실장 B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04~2006년 사이 전남 동

부권 20여개 공사 현장에서 매장 문화재 발굴 용역을 진행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책정하거나 출장비를 허위 책정하는 수법으로 용역비를 부풀려 3억8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총 4억8천만원 상당을 빼돌리거나 편취한 혐의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나원침 (7065) 김장동



평등선도서의 중점특권을 누리는 3,636 회대연계!

수원선도서 피오리

문의: 062-367-9000

‘제자 詩 道翁’ 마광수 교수 정직

상다팔



2007학년도 1학기 출강 금지 처분.

○마 교수는 이 같은 징계에 따라 이번 학기에 예정된 교양과목 ‘연극의 이해’를 강의할 수 없게 됐으며 전공과목인 ‘문학이론의 기초’도 국문학과 회의 의결로 폐강됐다고

○마 교수는 “어린애가 남의 집에 가서 장난감을 훔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다른 사람의 시가 묻혀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책에 낸 것인데 그 실수의 과장이 커져서 이렇게 됐다”고 해명.

○마 교수는 또 “내가 시를 못 써서 그랬나 싶어서 한 달 동안 시를 써봤는데 무려 80편이나 술술 써졌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멋을 재발견... 국제외식

야외 결혼식 가능 (부대)
관광버스음식 대접 (각종 한우류)

062-262-2278

듣성듣성한 머리가 고민이세요?

센스모에 오시면 풍성해집니다.

- 1. 교직원/대학생 20% 할인
- 2. 경찰공무원 20% 할인
- 3. 장남저로 전자 30% 할인

SenS-Mo

Tel. 062)675-3545 / 062)432-3545

061)745-8522